

AI 보험을 통한 국내 양계산물 안전성 홍보



지난 12월 1일 서울 명동 밀리오레 광장에서 농림부를 비롯한 가금관련 단체(분회 등)들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국산 가금류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가금축산물 안전성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 최준구 분회 회장,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AI 비대위 위원,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위원, 인기 연예인 등이 참석했으며 양계협회, 계육협회, 오리협회, 치킨외식산업협회, 농협중앙회 등 5개 단체는 AI(조류인플루엔자)로 가금 축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AI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 이들 5개 단체는 지난달 29일 농협공제와 현대해상에 3천여만원을 내고 1년 동안 보험에 가입했으며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거해 정상적으로 유통된 국산 닭고기·오리고

기·계란을 먹고 AI(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최고 20억원을 배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등 각 단체장 및 인기 연예인들은 소비자들이 AI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설령 AI가 발생하더라도 AI에 감염된 가금 축산물은 유통될 수가 없다며 국산 닭고기·오리고기·계란은 안심하고 먹을 것을 적극 홍보했다.

이외에도 홍보행사로 대학연합동아리 맛집탐험대는 닭모양 의상과 스크림 가면복장을 착용하고 AI를 응징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AI는 국내에 없으며 우수한 국산 가금 축산물은 안심하고 먹자라는 의미를 표현했다. 또한 닭고기·오리고기·계란 요리 30종 전시 및 치킨, 오리고기 시식회, 구운란 배포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졌다. 행사 이후 각계 인사들이 모여 삼계탕으로 점심을 하며 당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 닭고기·오리고기·계란 우수성 홍보



▲ 대학연합 동아리 맛집 탐험대의 퍼포먼스



▲ 양계산물 시식회



▲ 참석 인사들은 점심을 삼계탕으로 하였다.